

2022 Spring Information Usage Survey Analysis Report

2022 봄 자료 이용 현황 조사 분석 보고서

By Seoyoung Kim, MLIS
July 2022

2022 자료 이용 현황 조사 (객관식 15문제, 주관식 8문제)

실시 연월일: 2022년 4월 11일 (월)

서베이 방법: 등록과에서 재학생 리스트 받아, 사서가 재학생에게 발송

서베이 대상: 2022년 봄학기 재학생 (AACCC 1 AACCOE 2 AACM 0 AACMOE 2
BABS 5 BABSOE 11 BACM 4 BACMOE 9 BACC 11 BACOE 37
BASW 0 BASWOE 13 BAM 6 BSN 1 BSNOE 16 ECEOE 6
MACC 1 MACP 22 MACPOE 48 MAGLOE 3 MAGL-SW 3
MAM 13 MAMOE 3 MAT 2 MATOE 28 MAWSOE 6
MDiv 10 MDivOE 46 DCM 4 DCMOE 4 DMin 12)

한인 온라인 및 온캠퍼스 재학생 대상으로 발송

응답자: 41명 (온라인 31명/ 온캠퍼스 10명)

2020년 3월 중순, COVID-19 팬더믹으로 인해 학교수업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온캠퍼스를 섣다운한지 벌써 2년이 흘렀다. 이번 해 봄학기에는 문을 열고 온캠퍼스에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오미클론이 번지면서 이번 학기까지 캠퍼스에서 하는 수업을 모두 줌으로 진행했다. 따라서,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도 다음 가을학기로 연기되었다. 도서관은 현재 여전히 '도서 예약후 픽업만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 해에도 [도서관 시설], [도서관 자료], [도서관 직원] 등 온캠퍼스 학생들이 답할 수 있는 문항들은 모두 제외하고, 전자책 및 온라인데이터베이스 사용 관련 문항에 성경은 어떤 매체로 읽는지, 보통 뉴스는 어떤 매체로 읽는지 등, 2021년에 했던 서베이를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 즉, 일반적인 도서관 서베이 대신, 주로 전자자료 등의 이용 실태와 정보 이용 라이프 스타일을 알아보려고 온캠퍼스와 온라인 재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결과적으로, 서베이를 요청한 학생들은 기존의 채플에서 했을 때보다 많았지만 작성해서 제출해 준 응답자의 수가 41명으로, 이전 해에 54명 (응답률 약 17%)이었던 것에 비해서 응답률이 12.5%로 더 떨어졌다. 온캠퍼스에서 응답률이 99%였던 것에 비해 응답률이 온캠퍼스에서 실행할 때보다 거의 9배 차이가 났다. 온라인서베이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번 해의 데이터 결과는 **75.6%**가 온라인 학생의 의견이었고, 대학원 학생들이 **56%**였다. 온라인 서베이여서인지, 온캠퍼스 학생보다 온라인 학생의 응답률이 더 높았고, 타 학과에 비해 상담학과 학생들의 참여가 압도적이었다. 대학원 학생들 가운데 절반은 상담학과 학생의 의견이었고, 전체 응답자의 **48.8%**가 상담학과 학생들이었다.

지난 설문에서 응답자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질문에 넣지 않아 아쉬웠던 관계로, 이번에는 자료 이용 상황이 학생의 연령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령대를 표시하도록 했다. 결과를 보면, **40대~60대** 연령의 응답자가 **81.5%** 정도 차지하므로 WMU 학생에 **adult learner** 비율이 압도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초반
2.4%	26.8%	31.7%	24.4%	12.2%	2.4%

2021년에 비해 인쇄된 성경책을 보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약 **8%** 정도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스마트폰성경을 읽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자도 이전 해보다 **3%** 줄었고, 성경 오디오를 듣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1.5%** 정도 줄었는데, 컴퓨터로 성경을 읽는 것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2.3%** 증가했다. **iPad 나 Tablet PC를 사용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다음 설문에서는 컴퓨터로 성경을 읽는다는 의미에 이들 기기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기술해 주기로 했다.**

인쇄된 성경책 선호	스마트폰성경 선호	오디오성경 선호	컴퓨터로 성경을 읽기 선호
약 65.8% (2021년 74%)	21.9% (2021년 24%)	12.1% (2021년 14.8%)	7.3% (2021년 5.6%)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뉴스 매체는 **46.3%** 디지털 신문, **31.7%** 유튜브 방송, **19.5%** 텔레비전 방송 순이었다. 이는 이전 해와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종이 신문을 선호하는 이와 라디오 방송을 선호한다고 답한 이들이 지난해만 해도 **6.8%** 동률이었는데, 이번 해에는 이 두 매체를 선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디지털신문 선호	종이 신문 선호	유튜브 방송 선호	페이스북 선호	텔레비전 방송 선호	라디오 방송 선호
46.3% (2021년 45.8%)	0% (2021년 6.8%)	31.7% (2021년 32.2%)	7.3% (2021년 6.8%)	19.5% (2021년 17%)	0% (2021년 6.8%)

전반적으로 각 미디어를 사용하는 응답자가 전 해보다 **5%** 이상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 가운데 종이 신문을 보고 있는 이들이 지난 해 **61%**에서 **43.9%**로 큰 감소세를

보였다. 1년 사이에 종이 신문을 보는 이들의 비율이 17%가 줄어들었고, 라디오 방송을 듣는 이들도 21% 정도가 줄어들어서 의미있는 변화로 보였다. 종이 신문은 아예 안 본다고 한 이들이 56%였고, 라디오 방송을 아예 안 듣는다고 답한 이들이 응답자의 53.7%였다. 응답자 대부분이 중년에서 노년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으로 뉴스를 얻는다고 응답한 이들이 41.5%나 되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이전 해에도 알 수 있었던 것 처럼, 종이 신문 이용자가 급감하고, 디지털 신문 및 페이스북이 그 자리를 대신해 가고 있고, 기존의 주류 매스미디어라고 불렀던 텔레비전 방송과 라디오 방송의 위상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 자리를 유튜브 방송이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신문을 본다	종이 신문을 본다	유튜브 방송을 본다	페이스북을 본다	텔레비전 방송을 본다	라디오 방송을 듣는다
78% (2021년 86.4%)	43.9% (2021년 61%)	82.9% (2021년 92.6%)	41.5% (2021년 49.2%)	65.9% (2021년 72%)	46.3% (2021년 67%)

응답자 대부분이 가짜 뉴스가 있다고 생각했다.

가짜 뉴스가 있다	가짜 뉴스가 없다	모르겠다
90.2% (2021년 83.1%)	2.4% (2021년 13.6%)	7.3% (2021년 3.4%)

그리고, ‘가짜 뉴스 구분하는 법’을 안다고 답한 이들은 작년 48.1% 보다 15% 이상 줄었다. 그리고, 가짜 뉴스 구분법을 모른다고 대답한 이들이 작년보다 20%나 늘어났다.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가짜 뉴스를 구분하는 법을 모르는 이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이에 대한 워크숍 필요도가 작년에 비해 커졌다고 생각한다.

‘가짜 뉴스 구분하는 법’을 안다	‘가짜 뉴스 구분하는 법’을 모른다	‘가짜 뉴스 구분하는 법’이 있는 줄 몰랐다
36.5% (2021년 48.1%)	51.2% (2021년 33.3%)	12.2% (2021년 14.8%)

학교도서관에서 교보 E-Book을 제공하는지 몰랐다고 응답한 이가 2021년에는 이전 해보다 25% 급감했다. 이 당시, 팬더믹이 터진지 1년이 된 시점이어서, 도서관에 올 수 없는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전자리소스를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후, 직접 사용해 본 학생이 응답자에서 20% 증가했었는데 올 해는 9% 정도 감소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2021년 여름에 도서관 전자책 및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방식을 변경하면서, 미처 이 방법을 알지 못한 학생들은 액세스하지 못 해 사용해 본 학생들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음 설문지를 만들 때,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주관식 질문으로 만들어서 제공해야겠다. 그래야, 전자책 및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1주일에 1회 이상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응답자 비율이 지난 해에 비해 배가 늘어서 고무적이다. 그리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도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40%** 정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해 본 적 없다고 답변했으므로, 계속 꾸준한 교보 전자책 사용법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4월 들어서 전자책 사용법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녹화했다. 이것을 업로드하는 것 말고도, 4월에 다시 시작한 두 번의 라이브 줌 워크숍의 호응이 좋았던 것을 기억하며 이 전자책에 대한 워크숍도 라이브로 진행할 계획이다.

교보 E-Book을 제공하는지 몰랐다	지금까지 1~3회 사용해 봤다	1주일에 1회 이상 사용하고 있다	있다는 것은 알지만, 사용해 본 적이 없다
2022년 7.3% 2021년 1.9% 2020년 27.5%	2022년 26.8% 2021년 35.2% 2021년 15%	2022년 12.2% 2021년 6.8% 2020년 7.4%	2022년 36.6% 2021년 51.9% 2020년 57.1%

5. 우리 학교의 교보전자책 (<http://ebook.wmu.edu>)을 이용해 보셨습니까?

응답 41개



KSI E-Book같은 경우에도 있는 것을 몰랐다고 대답한 사람이 2020년에는 26.2%였는데, 2021년에 단 5.1%에 불과했다가 다시 올 해 12.2%로 늘어났다. 그리고, 2020년에 지금까지 1~3회 사용해 본 사람이 14.3%였는데, 2021년에는 33.9%로 2배 이상 늘었다가 올 해 들어서 24.4%로 다시 감소했다. 교보 E-Book과 마찬가지로 홍보는 많이 되었는데, 사용법을 몰라서 잘 활용하지 못 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여전히 36.6% (2021년 40.7%)에 달했다. 모든 면에서 교보 E-Book과 같은 패턴을 보였다. 2021년 여름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책에 로그인하는 방식이 일원화되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다. 따라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일단 로그인하고 각 자료의 아이콘을 누르면 자동으로 로그인된다는 사실을 홍보/교육에 우선순위를 뒤야 겠다.

그리고, KSI E-Book은 2022년 올 해 6월로 서비스사의 사정으로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공지했었는데, 이 종료일이 2023년 3월로 연기되었다. 따라서, 이 서비스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메인 홈페이지에 카드뉴스를 업데이트했다. 이 서비스가 종료되므로 도입하게 된 **YES24 book club** 단체 가입 기회와 북큐브 대여형 도서관에 대한 홍보/교육을 위한 zoom 워크숍을 계획중이다.

KSI E-Book을 제공하는지 몰랐다	지금까지 1~3회 사용해 봤다	1주일에 1회 이상 사용하고 있다	있다는 것은 알지만, 사용해 본 적이 없다
2022년 12.2%	2022년 24.4%	2022년 4.9%	2022년 36.6%
2021년 5.1%	2021년 33.9%	2021년 3.4%	2021년 40.7%
2020년 26.2%	2021년 14.3%	2020년 0%	2020년 59.5%

6. 우리 학교의 KSI 전자책(<http://ksiebook.kstudy.com/>)을 이용해 보셨습니까?

응답 41개



[GOOD]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전자 저널 데이터베이스 (KISS 또는 DBpia)가 있는 줄 몰랐다고 대답한 사람은 2.4%로 응답자 가운데 단 한 명뿐이었다. ‘있는 줄 알았으나 사용법을 모르는 학생’은 작년에는 28.8%였으나 이번 해에 24.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일주일에 1회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8.5%였는데 22%로 다행히 작년보다 배 이상 증가해서 다행스러웠다. 그러나, 여전히 전자 저널 데이터베이스 사용법 교육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전자책 및 전자 저널 데이터베이스 사용과 관련된 기타 응답을](#)

반영해서, 다음 설문부터는 ‘1주일에 1회 이상 사용하고 있다’라는 응답 보기대신 ‘매학기 사용하고 있다’라는 응답 보기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간헐적, 3번 이상,’ ‘리포트 쓸 때,’ ‘매학기 주로 보고서를 쓸 때만...,’ ‘매 학기, 필요할 때...’ 등 응답을 아우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KISS 또는 DBpia를 제공하는지 몰랐다	지금까지 1~3회 사용해 봤다	1주일에 1회 이상 사용하고 있다 + 관련 기타 응답	있다는 것은 알지만, 사용해 본 적이 없다
2022년 2.4% 2021년 3.4% 2020년 2.4%	2022년 26.8% 2021년 45.8% 2021년 54.8%	2022년 22%+12% 2021년 8.5%+5.1% 2020년 28.6%	2022년 24.4% 2021년 28.8% 2020년 14.3%

8. 우리 학교의 전자 저널 데이터베이스 (KISS 또는 DBpia)를 활용하십니까?

응답 41개



[GOOD] [도서관 홈페이지]에 대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데 동의한 분은 응답자의 58.5%로 작년의 35.6%보다 20% 이상 늘었다. 팬더믹기간 동안, 도서관 홈페이지에 일단 로그인하고 각 자료의 아이콘을 누르면 자동으로 로그인되는 방식으로 전자자료 액세스방법이 바뀌었다. 그러다보니, 응답자의 75.6%가 온라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간 본 적이 없는 응답자 비율이 단 12.2% 정도로 작년 35.2%에 비해 20% 이상 줄었다. 단, 작년과 올해 22% 동률로 도서관 홈페이지가 사용하기에 편리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올려야겠다.

9. 우리 학교의 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wmu.edu>)는 사용하기에 편리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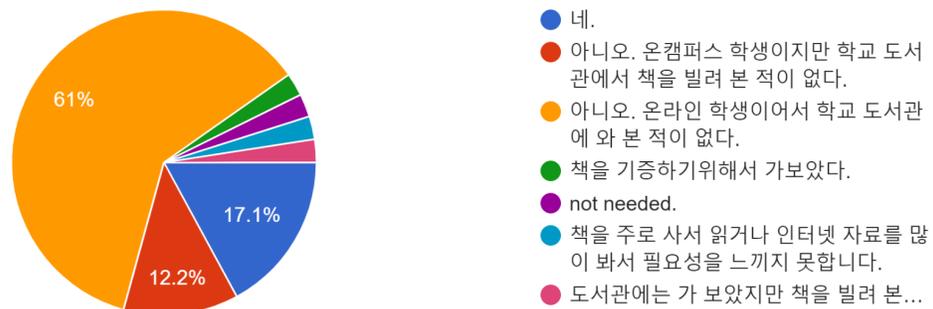
응답 41개



응답자의 17.1% (2021년 25.9%)만 로스엔젤레스의 5가와 Shatto Place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우리 학교의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온캠퍼스 학생임에도 방문하지 않는 분이 12.2% (2021년 13% 정도)였다. 이는 응답자의 83%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지 않아도 학업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응답자의 75.6%가 온라인 학생). 도서관의 물리적 공간이 갖는 장점을 잘 개발하고 홍보할 필요성도 있다.

10. 로스엔젤레스의 5가와 Shatto Place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우리 학교의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응답 4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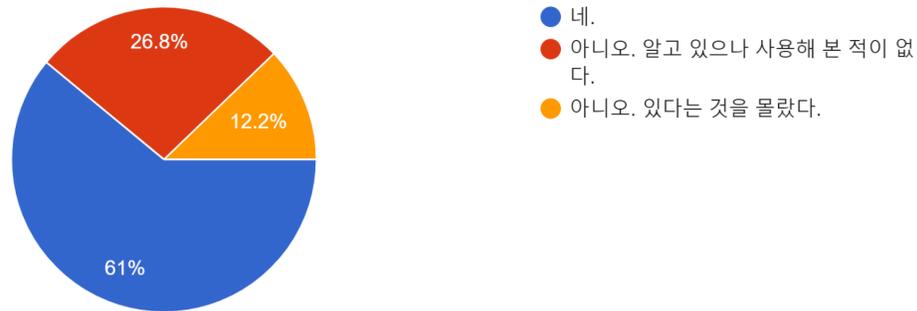


[GOOD] 월드미션대학교 정보활용 가이드 (<http://elibrary.wmu.edu>)를 이용해 본 응답자는 61% (2021년 42.6%)로서 약 18%정도 늘었다. 지난 해에는 40.7%가 정보활용 가이드를 알고 있으나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 해에는 26.8%로 그 비율이 13% 줄었다. ‘사용하고자 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라든지 ‘교보전자도서관 외에는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이 불가함’이라는 기타 응답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타 응답은 없었다. 도서관 블로그의 명칭을 ‘온라인 도서관’에서 ‘정보활용 가이드’로 변경하고, 전자자료를

액세스하는 곳은 도서관 홈페이지 한 곳으로 안내하므로서 학생들의 혼돈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11. 매학기 수업별 필수교재 리스트가 올라가 있고 도서관 자료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는 월드미션대학교 정보활용 가이드 (<http://elibrary.wmu.edu>)를 이용해 보셨습니까?

응답 41개



[정보활용교육] 관련 질문의 경우, ‘학술적 글쓰기’나 ‘정보와 리서치’ 수업을 수강한 적 있는 학생은 응답자의 39% (2021년 35.2%)였고, 앞으로 26.8% (2021년 40%정도)는 들을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수업을 듣기 전과 후의 변화를 ‘없음’ 이외에 자세히 적어주신 것 17개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GOOD]** 작년에 비해 다양한 코멘트가 배가 늘었다. 좋아진 것이라 생각한다.

- **learned more techniques to search information**
 - 학술적글쓰기를 통하여 논문을 쓸수가 있어 매우 좋았다
 - 독서 보고서 쓰기데 도움을 받는다
 - 도서관 사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배우고 나서 매우 유익하고 모든 학생이 맨 처음으로 배워야 할 과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자로 된 정보 사용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인쇄된 책을 선호하지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 사용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 무엇인가 조금은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 수업을 듣지 않았음
- **learn so much. learn how to find Journal and research**
 - 정보검색, 글쓰기, 주제 찾기, 논문 작성법, 시카고 스타일 등 많이 배웠음, 학술적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됨
 - 거의 10여년전이어서 기억이 안나네요.
 - 각주와 참고서지 다는법등, 기말리포트 작성할때 유용합니다.

- 학술적 글쓰기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을 듣고 나서 글을 쓸 때 배운 것을 활용하고자 노력합니다.
- 글을 보는 상식이 넓어 지고 글쓰는 솜씨가 향상 된것 같습니다.
- 매 수업 마다 과제를 제출 할때 요구하는 스타일로 작성하는 법을 배워서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글쓰기가 한결 수월해진 것 같다.
- 페이퍼를 쓸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이용이 쉬워졌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정보 검색 및 시카고스타일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29.3% (2021년 25.9%)였다.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한 이들은 36.6% (2021년 27.8%)로 약 10% 증가했다. 듣고난 소감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줌으로 하는 워크숍을 미리 계획하고 미리 공지하면 좋겠다.

- 우리학교 논문은 시카고 스타일로써야한다
- 시카고 스타일을 알아 과제에 활용하고 있다.
- 자기 것으로 소화할 때까지 계속 듣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워크숍을 통해 매번 새로운 정보를 얻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 워크숍은 아니고 수업때 시카고 스타일로 쓰라고 하셔서 알아요.
- 자세히 알게되어 좋았다.
- 여전히 적용하기가 어렵다.
- 시카고 스타일의 활용법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페이퍼 쓸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워크숍이 쉽고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GOOD] 학생들이 도서관에 있는 '학습지원센터'에 유료 개인 튜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아는 응답자가 19.5% (2021년 8.5%)로 11% 정도 늘었다. 그리고, **[GOOD]** 월드미션대학교 도서관은 SCATLA (남가주신학도서관협회) 회원도서관, ATLA(미국신학도서관협회) 회원도서관, 그리고 미주장신 도서관과 베데스다대학 도서관의 협력도서관인 것을 아는 분이 작년 28.8%에서 48.8%로 20% 늘었다. 작년에는 응답자 가운데 단 한 명만 이것을 알고 외부 도서관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다고 했는데 올 해는 두 분이 이용해 봤다고 응답했다. ATLA회원 도서관은 타주에도 있는데, 한 분은 'online class'라고 답해 주셨다. 온라인 학생들에게 타주라고 해도 살고 있는 지역에 상호대차협력 프로그램에 가입된 ATLA회원 도서관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겠다. 그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협력도서관으로서 많은 자료를 월드미션대학교 도서관 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26.8%

응답자만 알고 있었다. 이들 도서관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고 있다. 이 동영상을 통해 학생들에게 홍보 및 교육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서관 자료 및 서비스와 관련된 요청사항을 적어 준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학과 별로 책을 분류해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 2022년 7월부터 도서관 홈페이지> 추천자료 > 추천자료 를 학과별로 정리를 시작했다. (최현경 담당)
- KISS, DBPia 사용시 도서관 사이트를 통해 들어가게 되었는데 매번 도서관에 접속하다보니 전보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 도움되는 피드백입니다.
- 학교 무들 아이디로 도서관홈페이지도 로그인할수 있게 해주세요..
- search for information before but couldn't find information so stopped using it
-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도움받을 수 있도록 유튜브 동영상 제작 또는 안내방법을 더 구체화하여 온라인캠퍼스 학생들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로그인을 하기가 쉽지않아서 포기했습니다
- 도서관 자료를 찾으려 하는데 로그인 하라고 뜹니다. 어떻게 로그인 하나요?
- 온라인 학부라서 온라인 도서관을 사용해야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사용이 어렵습니다.
- 유튜브나 홍보 영상으로 온라인 도서관 사용을 위한 자세한 정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WMU 에서 로그인을 해도 KISS와 KSI를 열면 다시 로그인등록을 요구하는데 WMU 로 로그번호로 안됩니다. ←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방법에 대한 동영상 안내 필요
- 수업중에 필독서를 쉽게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 각 수업에 필독서가 도서관에 없는 경우와 책이 있어도 오랫동안 빌릴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
- 교보문고는 다른 학생이 책을 빌리면 못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한된 것이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음악과 관련 자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ebook도 다양했으면 좋겠다. 교보 ebook에도 이용할수 있는 자료가 너무 적다. ← 교보 ebook 다양, 필독도서 모두 가능하면 좋음, 짧은 대출기간 등 이슈...
- 시카고 스타일의 활용이 어렵습니다..처음 들어보고 접해보는 것이라 막막합니다..글자체로만도 파악하기가 어렵고 인용에 대한 부분도 좀 어렵습니다..인용의 범위설정도 어렵구요.좀 막연합니다. ← 시카고스타일 사용에 대한 동영상 안내 필요 '정보활용 가이드'에 만들어 올렸습니다. 도서관 카드뉴스를 만들어 링크를 걸어야 겠다.
- 18번 로그인(WMU로그인 번호로는 안됨)과 19번의 사용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서관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고 있다. 이 동영상을 통해 학생들에게 홍보 및 교육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ction Items

A. 다음 서베이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

1. 다음 서베이에서는 iPad 나 Tablet PC를 사용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다음 설문에서는 컴퓨터로 성경을 읽는다는 의미에 이들 기기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기술해 주기로 했다.
2. 다음 서베이에서는 5, 6, 8, 9번 질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주관식 질문으로 만들어서 제공해야 겠다. 그래야, 전자책, 데이터베이스, 도서관 홈페이지를 사용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음 서베이에서는 5, 6, 8번 질문에서 전자책 및 전자 저널 데이터베이스 사용과 관련된 기타 응답을 반영해서, 다음 설문부터는 '1주일에 1회 이상 사용하고 있다'라는 응답 보기대신 '매학기 사용하고 있다'라는 응답 보기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간헐적, 3번 이상,' '리포트 쓸 때,' '매학기 주로 보고서를 쓸 때만...,' '매 학기, 필요할 때...' 등 응답을 아우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B. 워크숍 및 수업 내용에 반영할 사항:

1. 종이 신문은 디지털 신문으로 매체를 바꾸므로서 여전히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텔레비전 방송과 라디오 방송의 위상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 자리를 유튜브 방송이 대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90.2%**가 가짜 뉴스가 있다고 생각했고, '가짜 뉴스 구분하는 법'을 모른다고 답한 이들도 **63.4%**나 되었다. 따라서, 가짜 뉴스에 대한 개념, 유튜브 방송 등을 대하는 태도 등을 다룰 필요가 있다.
2. 월드미션대학교 도서관에서 **E-Book**과 전자 저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응답자 대부분이 알고 있었다. 팬더믹을 계기로 학생들이 이 점은 확실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활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신 분이 여전히 많았다 (교보 **E-Book 36.6%**, KSI **E-Book 36.6%**, KISS 및 DBpia **24.4%**). 사용법 워크숍이 필요하다. 특히, 줌을 사용해서 워크숍을 라이브로 진행할 계획을 세워야 겠다.
3.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방법에 대한 동영상 안내가 필요하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일단 로그인하고 각 자료의 아이콘을 누르면 자동으로 로그인된다는 사실)

C. 도서관 시스템 및 사이트 수정, 밴더에게 요청할 사항:

1. 시카고스타일 사용에 대한 동영상 안내를 짧지만 이미 만들어서, '정보활용 가이드'에 올렸다. 도서관 카드뉴스를 만들어 링크를 할 계획이다. **7.15.2022 완료**
2. 도서관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동영상을 찍었고 후반 작업중이다. 이 동영상도 '정보활용 가이드'에 올린 후, 도서관 카드뉴스를 만들어 링크를 할 계획이다. **7.15.2022 완료**

D. 논의가 필요한 사항:(도서관회의에서 논의 결과)

1. 많은 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지 않아도 학업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도서관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생각. ← **깊이 다루지 못함**
2. KISS, DBPia 사용시 도서관 사이트를 통해 들어가게 되었는데 매번 도서관에 접속하다보니 전보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 **새로운 방법이 나쁜가?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방식으로 액세스하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도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하던 대로, 각 사이트에 대한 공통의 액세스코드를 제공하는 것은 보안상 헛점이 많아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3. 교보 **ebook** 다양, 필독도서 모두 가능하면 좋음, 짧은 대출기간 등 이슈...
 - a. 교양서는 다양하게 **KSI ebook, bookcube** 등에서 보라.
 - b. 필독도서 모두 전자책으로 나와있지 않은 한계를 알려야... 배너로? (교재 및 추천교재 위주로 교보 **E-Book**이 있으면 모두 구입할 예정이다. 교수님들이 주신 실라부스 위주로 구입할 **E-Book**을 고른다.)
 - c. 동문에게는 사용권한을 주되, 외부회원에게는 사용권한을 주지 않는다. ←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
 - d. 교보 **E-Book** 대부분 1유저인데 2유저로? 한 권 더 구입? → **당분간 계속 1유저로**
 - e. 교보 **E-Book** 48시간 대출기간을 좀더 길게? → **48시간 적당**

→ 교수들이 먼저 알고 학생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내용들. → 한 학기에 한 번 하는 교수세미나 시간마다 그동안 업데이트된 도서관 리소스 상황에 대한 안내를 하는 순서를 넣는 것이 좋겠다.
4. 한국어 대학교재 온라인 장터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는 지지난 해에 올라온 의견이었는데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회에 건의해 보았다. →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는데 커뮤니티 안에서 이 과정에서 불편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숙고해봐야 한다. 현재 도서관에서 학기별로 빌려줄 수 있는 도서가 조금 있는데 이들은 캠퍼스에 와서 픽업해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5. 음악과 관련 자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 음악과 강의계획서의 추천도서 참고하고 관심을 기울일 것! → 사실상 음악학과에 가장 필요한 것은 **Grove Music Online** 구독.

E. 이미 개선했거나 개선중인 사항:

1. 학과 별로 책을 분류해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 2022년 7월부터 도서관 홈페이지 > 추천자료 > 추천자료를 학과별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최현경 담당)
2. 학교 무들 아이디와 같은 (id: 학교 이메일주소, pwd: 학번)로 도서관 홈페이지도 로그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 도서관 시스템에서 이용자 패스워드에는 특수기호가 들어가야 한다. 무들과 100% 같게 변경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무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바꿔서 도서관에서 만드는 계정 아이디로 학번을, 패스워드로 학교 이메일주소를 사용하도록 정책을 수정했다.
3. 도서관의 영어 홈페이지를 위해, 한국어 내용에 영어를 병기하기로 했다.
4. 무들의 각 수업방의 공통 부분에 도서관 관련 홍보 유튜브 비디오 링크가 들어가도록 한다.
5. 국립중앙도서관의 협약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책의 카피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한국 저작권상 인쇄 우송 서비스만 가능하다. 인쇄 우송 서비스는 미국내로 한정한다. 인쇄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Labor charge**가 있다. (인쇄비 + 우편료 + **Labor charge**) 로 금액이 책정된다.